

익산 전통시장 주차난 '숨통' 트이나

시, 매일·서동시장 등 2곳 주차환경 개선사업 분야 선정 매일시장에 21억 투입 50면 증설 내년 12월 완공 목표

익산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주차난에 대한 해법이 마련됐다.

22일 익산시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에서 매일·서동시장 2곳이 주차환경 개선사업 분야에 선정됐다.

매일·서동시장은 원도심과 익산역 근처라는 교통 편리성 때문에 지역 전통시장 가운데 가장 큰 상권이 형성돼 있지만 편의시설과 주차장 등이 부족해 고객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지난 2009년 31대 규모로 조성된 매일시장 주차장은 인근 중앙시장(70면), 서동시장(40면)과 비교했을 때 턱 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의류특화시장이라는 특성 상 고객들이 시장에 머무는 시간이 길지만 주차 공간이 협소해 이용객들이 불편함을 호소해왔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매일시장은 내년 12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국비 12억 6천만 원을 포함해 총 21억 원(시비 8억 4천만 원)을 지원받아 현 주차장 인근 부지 1137제곱미터에 주차장

50면을 늘리는 확장공사를 추진한다.

오는 7월부터 해당 부지와 지장물에 대한 협의매수에 들어가 예정이며 설계용역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7월 공사에 착공해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동시장은 국비 3600만 원을 포함해 총 6000만 원(시비 2400만 원)을 지원받아 주차장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교체한다.

차단기와 요금 정산시스템, 차량번호 인식기, 주차부스 등의 시설이 전반적으로 교체되면 주차장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서동시장 주차장은 지난 2013년 51대 규모로 조성됐지만 시장 규모에 비해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이중 주차는 물론 주차 금지구간까지 주차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시는 이번 사업 추진으로 전통시장 주차공간이 확보되면 시장 진출입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 혼잡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주차환경 개선 등으로 방문객이 증가해 전통시장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현을 시장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장 내 주차장 안전관리와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쇼핑환경을 갖춰 지역 주민들이 즐겨 찾는 전통시장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인천 기자



군산상공회의소는 22일 지역 상공인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형환 광주지방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형환 광주국세청장 "군산 상공인 세금유예 실시"

군산상의 초청 간담회에서

군산상공회의소(회장 김동수)는 22일 지역 상공인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형환 광주지방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기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지역 상공인들에게 국세청의 다양한 세정 지원 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기업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경청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형환 청장은 "열린마음과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소통하고 혁신하는 세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지역 상공인들에게 적극적인 세금유예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건의한 세금불편 사항은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즉시 시행이 가능한 것은 신속히 해결하고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것은 검토해 개정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모현·우남아파트 문제 해결 공론화위원회 구성 내일 첫 회의

익산시(시장 정현을)가 그동안 복잡한 이해관계에 얽혀 지지부진하던 모현 우남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우남아파트 해법 마련을 위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첫 회의를 오는 23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는 '익산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학계·전문가·언론계 등으로 구성했으며 우남아파트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시 및 자문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지난 2014년 우남아파트에 대 피명령이 내려진 이후 주민 면담과 토론회를 개최해 LH와 협약, 도시재생사업 공모 등 여러 가지로 해결방안을 찾고자 노력해왔으나 각기 다른 이해관계로 마땅히 해결방안을 찾지 못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해머던지기 유망주' 정다운, 태국 국제육상대회 금

53.46m 기록
익산시청 소속 정다운 선수가 18일부터 21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2019 태국오픈육상경기선수권대회 여자 해머던지기 종목에서 올해 처음으로 국제대회 금메달을 획득했다.



정현을 시장은 "선수들의 노고를 위로하며 '계속되는 훈련과 시합에서 부상 없이 정진해 앞으로 펼쳐질 각종대회에서 좋은 성적으로 익산시의 명예를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에너지 효율개선 복지 본격화

군산시가 에너지 효율 개선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에너지 복지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난방 주거환경이 열악한 세대에 난방기구 점검과 노후 부품을 교체하고 LPG 사용 가구 약 1,000여 세대 금속배관 교체와 퓨즈록, 타이머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저소득층 1,000여 세대와 경로당 등 복지시설 100여 곳의 전열기구 안전점검과 고효율 LED 조명 설치로 에너지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올해는 하절기 냉방비도 지원한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자립형 스마트팜 벨리 조성 본격화

부지 매각 추진위해 국방부 방문

군산시가 지역 자립형 스마트팜 벨리 조성사업의 본격 추진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22일 이승복 군산시 부시장과 김병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국방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군산 스마트팜 벨리 사업부지 내 스마트 온실신축 및 연계국비사업의 시급성 등으로 국방부의 신속한 매각 추진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면면 보덕리 430·2번지 일대 7만 6천여㎡에 이르는 옛 106연대본부 부지는 집단·규모화 되어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모델을 기획하고 농업관련 연계사업을 확대하기에 최적지이다.

시에서는 '군산 자립형 스마트팜 벨리 조성'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국방시설투자사업 전라시설단과 국방부 유휴 행정재산 매입 절차를 진행해왔다. 그간 군산시는 공익사업 인정 절차 이행 및 예산확보 등 매입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국방시설투자사업과 수차례 부지

매입관련 협의를 통해 지난 4월 부지 감정평가를 끝내고 국방시설투자사업 전라시설단의 매각심의를 통과하였으며, 국방시설투자사업의 부지 매각 승인 후 소유권 이전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승복 부시장은 "이번 군산시의 국방시설투자사업 전라시설단의 부지 매각은 관·군 상생협력을 통한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군산시 경제 활성화 및 농촌 활력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지역경제 활성화 '효자손'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 현금·신용카드 매출 1414억 ↑

군산시가 작년 9월부터 발행하기 시작한 군산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2018년도 관내 소상공인 업소별 수입금액을 분석한 결과 군산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비가맹점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기타매출 등이 전체적으로 감소, 12,925개 업소의 총매출이 전년 대비 710억원 감소(5% 감소)했다.

특히 관내 대형마트의 2곳의 매출은 전년 대비 8%가 감소(A마트 4% 감소, B마트 13%감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반해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은 현금매출 뿐 아니라 신용카드 매출도 더불어 상승하며 가맹점 8,412개 업체 총 매출이 1,414억원(16% 증가) 증가해 한 개 업소 당 1,700만원 가량의 매출 상승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상품권 활용을 예산으로 91억원이 투입되어 910억원의 상품권이 군산시 관내에 유통되며 가맹점에서 1,414억원의 매출이 상승한 것은 상품권 사업이 투입예산 대비 15배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한국지방행정연

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고향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및 제도화 방안'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군산시는 "군산사랑상품권 사업이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 등 지역경제에 큰 부담목이 되어주고 있다"며 올해 4,000억원의 군산사랑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으로 4,000억원의 상품권이 관내에 유통될 경우 1만여개 가맹점 업소 당 연5000만원 이상 매출 상승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강일준 군산시장은 "군산사랑상품권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게 되어 기쁘다"며 "군산사랑상품권 사업의 성공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 노력 덕분"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상품권 사업 확장을 위해 올해 하반기에 모바일 상품권을 도입할 계획으로, 모바일 상품권이 도입되면 소비자는 간편하고 안전하게 QR코드로 결제하고 가맹점은 수수료 부담완화와 은행환전 등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상품권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가맹점별 모바일상품권 QR코드 설치 협조 등 다시 한번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